

**Dynamic**  
**BUSAN**

3,000 명 X 50 명

관객이 주인공입니다

제28회

# 부산연극제

Busan Theater Festival

2010. 3.25(목)~4.12(월)

부산문화회관 중·소극장,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한국연극협회 한국예총부산광역시연합회 부산일보 국제신문

KBS 부산방송총국 MBC 부산문화방송 KNN 부산CBS BBS 부산불교방송

협찬 | KYOBO 교보생명

BS 부산은행

MEGA MART

아안햇살(주)

ORS 음스

관객이 주인공입니다

제28회  
**부산연극제**  
Busan Theater Festival

극단 누리에

**꿈꾸는 화석**

연출 강성우 작 고연옥

3.30(화)~31(수)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연출 **강성우**

**연출의도**

이 작품은 조선인 전범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식민치하의 삶을 '아픔과 설움'만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당시 어쩔 수 없는 선택, 그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 실제 식민지를 이어오게 한 줄기가 아니었을까?

이러한 작가의 생각은 수한이라는 한 인물의 자아 찾기와 교묘하게 연결 된다.

또한, 이것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과의 이야기와도 맞물린다. 시대의 부침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살아 가는 우리의 모습, 자신이 만들어낸 테두리 안에서 '왜 나는 거부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라는 생각으로 인해 부정적이고, 힘든 일들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아픔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해 비틀거리다 쓰러지곤 한다.

그곳에서 느끼는 절망.  
일어설 수 없이 느껴지는 고통에 대한 인식, 그것이야말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은 아닐까?

살아있음에 끊임없이 자신과의 투쟁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신에게 빼앗긴 삶을 찾기 위한 귀항의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좋은 작품을 허락해 주신 고연옥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줄거리**

1943년 5월, 일제 강점기의 희망도 꿈도 없는 절망만이 존재했던 조선. 조선인 김수한은 아버지(기영)와 동생(진한)을 남겨둔 채 일본 군무원으로 징집에 참여한다. 어느 날 "천황폐하 만세" 소리와 함께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수한의 안위를 걱정하던 기영과 진한은 안심하게 되지만... 전쟁은 일본의 처참한 패배로 끝나게 된다.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전범재판이 열리고 일본인 장교와 조선인 장교, 조선인 군속들 일부는 사형판결을 받게 된다. 그 와중에도 일본인과 조선인의 다툼은 끊이지 않는다. 그러던 중 니시하라 대령이 석방된다. 저마다의 사연과 이유가 있지만 사형이 집행되기 시작하는 포로수용소. 마지막으로 남은 김수한은 죄가 없음이 인정되어 석방된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어보지만... 잔인한 운명은 김수한을 쉬이 놓아주지 않는다.

세월이 흘러 니시하라 대령이 운영하는 철공소를 찾은 김수한. 수용소 석방이후의 삶과 현재 자신의 마음을 니시하라에게 털어 놓고, 니시하라의 철공소에서 함께 일하기로 한다. 철공소 역시 일본인과 조선인이 함께 공존하는 가운데 그 사이의 논쟁은 끊이지 않는다. 어느 날 밤 만취한 김수한은 고향을 그리워하다 마음에 쌓아두었던 분노가 폭발하면서 이윽고 조선인과 일본인의 싸움이 된다. 니시하라의 딸인 모모짱과 부인인 하루코는 김수한을 내보낼 것을 종용하고, 니시하라는 수한에게 조선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는데...

## Cast



김수한 **이종민**



니시하라 **송진경**



김기영 **하현관**



권철,박경수 **배진만**



하세가와, **백길성**  
이토



하루코 **강봉금**



연합군장교  
마을이장 **엄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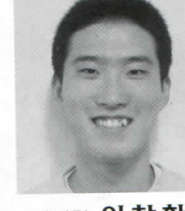
서광희,  
강정옥 **우영태**



아미노우치  
마쓰다 **김부성**



모모짱 **황유나**



김진한 **이창환**



이치로 **조성배**



서광희 **안재홍**



특별출연 **강모세**

## Staff



작가 **고연옥**



조연출 **최현경**



제작 **강봉금**



기술감독 **최광욱**



무대디자인 **황지선**



의상디자인 **김지연**



음악 **백순일**



분장 **박은주**



소품 **최성희**



음향 **이지혜**



의상 **류정미**



의상 **신나리**



진행 **황정미**